

-(으)면서

두 동작을 동시에 — ~하면서

같은 사람이 같은 때에 두 동작을 함께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‘같은 사람’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다른 한국어 표현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면서	가다 → 가면서
자음으로 끝남	-으면서	먹다 → 먹으면서
ㄹ로 끝남	ㄹ 유지	만들다 → 만들면서
이다, 형용사	대조의 뜻	학생이면서
문어 형태	-(으)며	일하며 공부해요
주어가 다를 때는	-는 동안	제가 자는 동안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은 그대로 남습니다: 가면서, 먹으면서, 만 들면서. 이 어미 앞에는 시제가 오지 않으며, 시제는 마지막 동사가 나타 납니다.

주어는 두 절에서 같아야.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합니다. 한 사 람이 두 동작을 모두 하므로 이 문장이 성립합니다.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행동할 때는 대신 -는 동안을 씁니다.

형용사와 이다와 함께 쓰면 동시성이 아니라 대조의 뜻으로 바뀌어 ‘~이 면서도’에 가까워집니다: 학생이면서 회사에 다녀요. 문어 형태인 -(으)며 도 같은 뜻이며 격식 있는 글에 나타납니다.

■ 예문

- 1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.
- 2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요.
- 3 저녁을 만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.
- 4 웃으면서 인사했어요.
- 5 그 사람은 학생이면서 회사에 다녀요.
- 6 걸어가면서 이야기할까요?

■ 비교

-고
-고는 동작을 차례로 늘어놓고, -(으)면서는 동작이 겹칩니다. 둘을 바꾸 면 시간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. (먹은 다음 봤다) /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. (두 가지를 동시에)

-는 동안
-는 동안은 두 절의 주어가 달라도 되며, 앞 절을 하나의 시간 구간으로 다룹니다. 다른 사람이 다른 동작을 하고 있을 때 필요한 형태입니다.
제가 요리하면서 노래했어요. (내가 요리도 하고 노래도 했다) / 제가 요리하 는 동안 동생이 청소했어요. (내가 요리하는 사이에 동생이 청소했다)

-(으)며
같은 어미의 문어 형태입니다. 말로 하면 딱딱하게 들리지만 보고서나 기사에서는 표준입니다.
일하면서 공부해요. (구어) / 일하며 학업을 병행한다. (문어)

■ 주의

- ✗ 제가 요리하면서 동생이 청소했어요.
- 제가 요리하는 동안 동생이 청소했어요.
- (으)면서는 두 절의 주어가 하나여야 합니다. 두 사람일 때는 -는 동안을 씁십시 오.
- ✗ 저녁을 만들으면서 전화했어요.
- 저녁을 만들면서 전화했어요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면과 마찬가지로 ㄹ을 유지하고 으를 넣지 않습니다.
- ✗ 밥을 먹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.
-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.
- 이 어미 앞에는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가 나타납니다.